

남원시, '공공의대' 설립 부지 매입 절차 착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2022년 개교 목표...총 6만7000㎡ 토지 감정평가 마무리
분묘 연고자 찾기 공고 등 협의매수 진행 내년 상반기 완료

남원시가 오는 2022년 개교 목표인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하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부지매입절차를 착수했다. 남원시는 공공의대 개교를 위해 토지감정평가를 마무리하고 분묘의 연고자를 찾기 위한 공고절차를 진행하는 등 협의매수 절차를 밟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공공의대는 월락동 충경로 인근 6만 7000㎡ 부지에 조성된다. 시는 부지 매입을 이르면 올해 연말까지,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한다.

시는 보상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과 보상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완료했다. 소유권 이전등기 및 공탁업무를 수행할 법무사를 선정하는 등 부지매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토지매입에 필요한 84억원 중 64억원을 확보해 둔 상태다. 시는 올해까지 협의매수 절차를 밟고,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 수용절차를 진행한다. 이 부지는 부지매입을 위한 사전단계인

건축물의 신축과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 변경 등을 제한하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또 오는 2022년 공공의대 개교를 위한 정부예산 확보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시는 오는 2021년까지 건물 완공에 필요한 정부예산 268억원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당장 내년에는 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64억원을 요구했다. 이 예산은 공공의대를 건립하기 위한 실시설계비용과 건물 건축비, 법인운영비, 연구비 등이다. 현재 복지부는 실시설계비용(9억9500만원) 반영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나머지 예산은 공공의대 설립근거가 될 '국

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오는 2022년 개교가 목표인 공공의대는 폐교한 서남대 의대 정원인 49명으로 개교한다. 공공의대는 국가균형발전과 공공의료정책 강화에 발맞춰 의료격차 해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부지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전 국가적으로 의료취약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공공의대 설립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신안 안좌중학교 '관악오케스트라' 전국단위 경연대회 2년 연속 은상 화제

신안군의 섬마을을 작은 중학교가 전국 단위 관악경연대회에서 2년 연속 은상을 수상해 화제다. 신안군 안좌중학교가 지난달 김해 문화의 전당에서 개최된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에서 지난해 이어 올해도 은상을 차지했다. 안좌중 관악오케스트라(사진)는 전교생 29명 전원이 단원으로 이번 대회에서 행진곡 아리랑 겨레와 Oregon을 연주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이번 경연에서 안좌중 관악오케스트라는 학생 수 감소로 전교생으로도 오케스트라를 구성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고 1인 1악기 1인 1파트를 담당해 공연을 하는 부담감을 이겨내고 감성을 울리는 연주를 펼쳐 관객들의 열렬한 환호와 박수갈채를 이끌어 냈다. 이를 위해 안좌중은 학교 내 방과후 교육과 야간 방과후 자율활동 시간에 꾸준히 실력을 닦았으며 여름방학 중에도 1주일 간 오케스트라 캠프를 개최해 대회를 준비하는 등 남다른 열정을 보였다. 특히 선후배와 동급생이 멘토와 멘티를 구성해 함께 한 노력과 선생님의 지도와 학부모들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은 이번 결실을 이루는데 큰 힘으로 작용했다. 김태성 안좌중 교장은 "안좌중 관악오케스트라가 지속적인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해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성장하기를 기원한다"며 "학생예술문화 축제 및 지역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꿈을 키워 나가고 세계로 미래로 뻗어나가는 안좌행복 프로젝트를 이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정읍시는 지난 30일 시가1동에서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한 '시니어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정읍시 제공>

정읍시, 건강한 노후 생활 지원 '시니어센터' 개관

정읍시가 지역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니어센터'를 완공하고 개관식을 가졌다. 도시재생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의 일환으로 건립된 정읍 시니어센터는 연면적 574㎡ 규모의 2층 건물로 총사업비 8억원

이 투입됐다. 기존 노후 된 시가1동사무소 건물을 리모델링 후 1층에는 경로당과 향토수호연합회를 설치, 2층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소규모복지센터와 노후재 전시설, 체력단련장 등을 설치했다. 소규모복지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노래와 건강체

조,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 등 건강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노후재 전시설은 정읍의 노후재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일자리와 연계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과 건강체조, 춤 교실 등을 보건소와 연계해 운영할 방침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고창 농·특산품 가공업체 6곳 추석 명절 선물세트 판매 시작

고창지역 내 농·특산품 가공업체 6곳이 따뜻한 추석 명절 꾸러미 선물세트를 선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고창군에 따르면 지역 농특산품 6개 업체(삼보죽점, 선운도원, 청맥, 호야농장 등)들이 추석 명절 선물세트 구성을 마치고, 판매를 시작했다. 선물세트는 8개 제품(죽염, 조정, 보리, 참깨 등)을 2만원과 3만원 세트로 구성했다. 이번 명절꾸러미 선물세트 사업은 지난해 이어 두 번째다. 업체들은 철저한 품질관리로 엄선된 상품을 준비하고, 군은 포장재 제작과 홍보를 담당했다. 고창군은 향후 꾸러미 선물세트 제작으로 고창 농특산품 판매가 순차적으로 확대돼 생산농가들과 가공업체들의 소득증대 등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농·특산품 홍보와 유통·판매망 확대 등 다양한 분야까지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통합마케팅 조직이나 사회적 기업 등 운영업체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순창군, 지난해 살림규모 4917억원...군청 홈페이지 공개

순창군은 '2019년도 지방재정공시'(2018년 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군청 홈페이지(www.sunchang.go.kr)에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방재정공시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상황을 공개하는 제도로, 2월(해당연도 예산)과 8월(전년도 결산)에 대해 1년에 2차례 공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재정공시는 순창군의 살림 규모와 재정여건, 부채, 채무, 채권 등 총 9개 분야 59개 항목의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를 포함하고 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군의 지난해 살림규모는 4917억원으로 전년 대비 44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4499억원보다 418억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이 354억원으로 전년 대비 68억원이 증가했고, 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이전 재원은 3249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87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출 규모는 3562억원으로 전년 대비 260억원이 증가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일반회계가 3366억원, 그중 농림해양수산

부분이 711억원(21.1%), 사회복지 부분이 583억원(17.3%)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방채무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0원'으로 재정 건전성면에서 안정성을 보이며, 군민 1인당 지방채 부담액은 31만 6000원으로 파악됐다. 순창군 관계자는 "자체 수입이나 이전 재원 등은 유사 자치단체에 비해 높고, 채무가 전혀 없어 세원의 부족한 상황에서도 이전 재원의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재정이 양호하다"고 말했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

함평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 국비 6억원 확보

함평군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은 방법, 방재, 교통 등 개별 운영 중인 지자체 각종 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는 도시안전망 조성사업이다. 지난 8월 실시한 이번 공모에는 전국 34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을 거쳐 함평군을 비롯한 12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 함평군은 국비 6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해 올해 연말까지 군 CCTV통합관제센터 내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

스마트시티 기반이 구축되면 함평군 지역 187개소, 721대의 CCTV 영상에 통합해 112 범죄영상 지원, 112 현장출동 지원, 119 응급구조 지원 등의 재난상황 긴급 대응이 가능해진 다. 특히 어린이, 치매노인 등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사고의 골든타임 확보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중점 추진 중인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스마트시티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 서비스 모델을 적극 개발해 지역안전지수를 높여겠다"고 말했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

그린알로에

그린궁 HOME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